

“샌드위치된 태권도 살려달라”

무주군-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위, 국회 찾아 지지 호소 의원들에게 “이대로 두실 건가요?” 스티커 부착된 샌드위치 전달

무주군과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정진욱) 및 위원들이 지난 22일과 23일 양일간 국회를 방문하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도움을 모두 찾아가 태권도 샌드위치와 무주군수 명의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지지 호소문을 전달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한창 진행 중이어서 소속국회의원들에게 국내외 태권도의 위기를 샌드위치로 비유하여 실감나게 전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관심과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된 샌드위치 포장 박스에는 중국의 우수와 일본의 가라테 사이에 끼여있는 샌드위치 신체의 태권도 이미지에 “태권도 살려”, “샌드위치 태권도 이대로 두실 건가요?” 문구가 새겨진 스티커가 붙어있다. SOS 샌드위치 태권도를 지켜주세요 제목으로 시작된 호소문에는 210개국 1억5,000만명이 한 국가로 수렴하고 있는 태권도는 가장 성공한 인류의 원조이자 ▲최근 올림픽 종목과 중국, 미국의 우수와 일본의 가라테로부터 태권도가 거센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 ▲지난 10년간 국내 대학의 입학생 수는 7%가 줄었으나 태권도 학과는 이의 10배 정도인 62%가 줄어드는 압



울한 국내 태권도 환경과 여건을 담았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무서운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며 ▲한인 해외 개척 사범들의 사망 또는 고령화 ▲일부 국가에서 국기원이 아닌 자체 협회에서 단종 발급 ▲유튜브 동영상에서 몇 가지 폼새민을 익혀 사범으로 활동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 입학생을 모집해서 글로벌 지도자이자 평화의 사절을 육성하는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이하 사관학교) 설립만이 답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태권도도 방심하면 올림픽 정식 종목에서 제외되는 등 비극을 맞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사관학교는 태권도의 세계화, 올림픽

영구종목화의 동력이며 태권도를 통해 한류문화 영토 확장과 세계 평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속도로 5km 건설비용이면 전 세계로 수백만km 뻗어갈 태권도 문화고속도로를 만들 수 있다며 국익과 국가경쟁력을 위해 국립으로 사관학교가 설립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의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간곡히 호소했다.

한편 정진욱 위원장은 “사관학교 설립은 태권도의 백년지대계로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 사업이라 생각한다”며 “태권도원과 연계한 진정한 세계 성지와 완성으로 태권도가 한 단계 도약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지지와 호소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사관학교는 전 세계 태권도인들을 입학생으로 받아 글로벌 태권도 지도자이자 평화의 사절로 육성하는 대학원대학 개념의 전문 교육기관으로, 무주군은 사관학교 설립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6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Again 태권도를 위한 U-프로젝트”로 명명한 정책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U-프로젝트의 핵심 사업과 출구 전략은 글로벌 태권도 지도자 육성을 위한 전문 교육 기관인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를 설립(총 사업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한 기본계획 수립 후 확정)하는 것으로, 태권도가 국기(國技)인 만큼 설립주체(Main)는 국립으로 하되 전라북도와 무주군이 부지 제공과 사업비 등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을 제안서에 담았다. /무주=전문성 기자

“안은 썩었고 굼아”... IBK 기업은행 사태 겨냥?

김연경, SNS에 의미심장한 글 남겨

배우 여제 김연경(33·상하이)이 최근 논란이 된 여자프로배구 IBK기업은행 논란을 겨냥하는 듯한 메시지를 남겼다.

김연경은 22일 밤 자신의 SNS에 “같은 화려하고 좋아보이지만 결국 안은 썩었고 굼아는 갈...그릇이 커지면 많은 걸 담을 수 있는데 우리 그 그릇을 꼭 채우지도 못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적었다.

“변화가 두렵다고 느껴지겠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가 변해야 될 시기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대상을 지칭하진 않았지만,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IBK기업은행에 관한 내용으로

풀이되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최근 주전 세터 조송화와 김사니 코치의 무단 이탈로 내홍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구단은 서남원 감독과 윤재섭 단장을 경질했다.

조송화는 임의해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돌아온 김사니 코치에게는 감독 대행을 맡기로 하는 등 문제 해결 과정에서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여자배구는 2020도쿄올림픽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번 시즌 7번째 구단까지 창단, 화려한 막을 올렸다.

그러나 개막 두 달여 만에 IBK기업은행 사태로 팬들에 적잖은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 /뉴스



하늘에서 내려다 본 순창 팔덕다용도보조구장.

(사진=순창군청 제공)

태권도 실력 입증

전주대 태권도 시범단

원주 댄싱카니발 경연서

일반부문 최고상 받아

전주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은 최근 2021 원주 다이나믹 댄싱카니발 경연대회에서 일반부문 최고상인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민참여형 축제로 자리 잡은 2021 원주 다이나믹 댄싱카니발은 워드코로나 시대에 맞춰 온·오프라인 결합 축제로, 원주문화재단이 주관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원주 종합체육관에서 열렸다.

1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 행사는 매년 40팀이 넘는 해외팀과 국내팀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 걸거리 퍼레이드 축제로 총 50팀이 참가했다.

전주대 태권도 시범단은 댄스포스컴퍼니와 전복을 대표해 일반부문 최종 본선 진출 12팀 중 최고상인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숙경 교수(경기지도학과)는 “최근 소방의



최근 열린 2021 원주 다이나믹 댄싱카니발 경연대회에서 일반부문 최고상인 최우수상을 받은 전주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날 국가행사에 단독으로 출연한 전주대 태권도 시범단이 이번 대회 최우수상으로 그 실력을 입증받았다”며, “K-컬처인 태권도공연”을 통해 전주대 태권도 시범단이 명문 태권도 공연단으로 뛰어난 태권도 시범 인재를 육성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경기지도학과(태권도전공)는 1

학과 1창업을 목표로 ‘아라치’와 ‘짜올아비컴퍼니’를 창업하면서 글로벌 K-컬처 마스터 예술단체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11월 27일, 12월 11일, 12월 18일 세차례 전주대 JJ아트홀에서 전북특화 태권도공연을 펼친다. 자세한 공연문의는 전화(063-220-3255)로 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장류 고장서 ‘꿈나무 야구열전’

26일 순창고추장배 중학야구대회

순창 팔덕다용도보조구장서 5일간

화순중 야구부 등 10여개 팀 참가

2021 순창고추장배 중학야구대회가 오는 26일 전북 순창군 팔덕다용도보조구장에서 열려 5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이번 대회는 순창군 야구소프트볼협회(회장 김하근)가 주최하고 전라북도과 순창군 순창군체육회가 후원한다.

총 10개팀 300여명이 대회 참가를 신청했고 지역별로는 경기권 4개팀(청담중 연세중 소래중, 여강중), 충청권 2개팀(충남중 공주중), 전라권 4개팀(전라중, 군산중 화순중 세지중)이 출전한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추진하는 선수 부상방지 프로그램에 따라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겨울철에는 대회를 금지하고 있어, 이번 대회가 올해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야구대회인 만큼 우승컵을 차지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되고 있다. 주최 측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

회가 개최되는 만큼 지역주민의 안전과 선수 보호를 위하여 참가선수, 감독 및 코치, 스태프 등 경기장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대회 첫날 기준 48시간전에 실시한 PCR검사 음성확인증명 제출하도록 공지했다.

또한 발열체온, 손소독, 손목띠 부착, 건강모니터링은 물론 이용자 명부(콜 체크인)를 반드시 작성하고 명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4주 후에는 안전하게 폐기한다.

또한 순창군 스포츠마케팅 방역단에서는 지난해부터 쌓아온 방역노하우를 바탕으로 화장실과 덕아웃, 경기장 안팎을 꼼꼼하게 소독하고, 문고리, 손잡이 등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시설은 소독거즈로 닦는 등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체육진흥사업소 서상희 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스포츠마케팅이라고 생각한다”며 “한 단계 더 강화된 방역관리로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여 안전하게 대회를 치러낼 수 있도록 세심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전주매일 캠페인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